

#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식별해 나가야

## 시카고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주께 함께 가는 길' 주제로 이나시오 침묵 피정 개최



시카고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에서 개최한 이나시오 침묵피정 참가자들과 황정연 신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일리노이】** 시카고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Christian Life Community)는 지난 8월 16일부터 4박 5일간 Libertyville에 있는 Marytown Retreat Center에서 '주께 함께 가는 길, 함께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나시오 침묵 피정을 가졌다. 이번 피정은 시카고 지역과 타주에서 하느님의 초대에 응한 28명의 피정자들과 황정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예수회,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 심리학 교수) 신부 지도로 진행되었다.

'기도란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일'이라는 성녀 소화 데레사의 말씀과 함께 '주께 함께 가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면서(1 요한 3,2) 그분을 내

안에 새기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말로 첫날 피정 강의를 시작되었다. 황정연 신부는 매 강의를 시작하며 준비한 성경말씀과 기도 안내로 피정자들이 기도실습을 해보도록 안내해 주었고, 강의 후에는 이나시오 영신수련 각 주간의 흐름을 따라 주어진 기도자료로 기도하며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또한 강의 후 피정자들과 공동기도를 함께 드리며 관심기도를 이끌기도 했다.

피정자들은 첫날 시편과 예레미야서 말씀을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하느님'(영신수련 #75)을 느꼈고, 둘째 날에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헬에 이르러 아

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주께로 함께 가는 여정에서 그 방향성을 식별하도록 안내를 받았다. 또한 황 신부는 기억 속에 있는 각자의 옛집을 방문하여 그곳에 함께하신 하느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준 셋째 날의 기도 실습과 강의를 통해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을 떠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피정은 '하느님의 도움으로 과거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함께 가자는 초대'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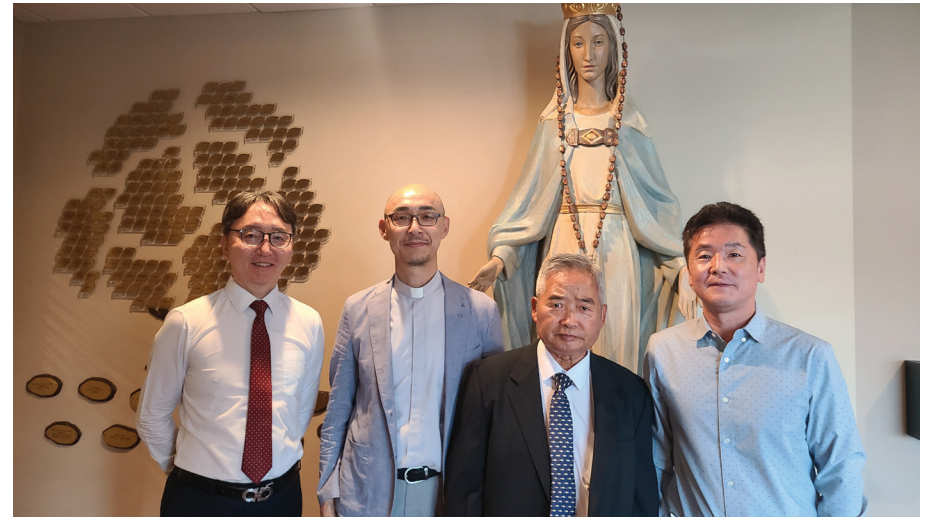
황신부는 넷째 날 강의에서 성모님이 자신을 낮추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찬양하셨듯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 받는 죄인'임을 깨닫고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 강의는 '성심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낯선 자제로 당신의 발치에 앉아 당신의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셨듯, 우리도 '하느님의 완전한 계시'인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발치에서 머문 피정의 순간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피정은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요한 14, 20) 말씀으로 마무리했다.

뒤이어 있었던 과건미사에서는 황 신부의 주례로 6명의 종신서약자와 5명의 서약 갱신자들의 서약식이 있었다. 한편, 시카고 KCLC에서는 이번 피정을 시카고 지역 한인 성당과 디트로이트 한인 성당 주보에 6월부터 홍보를 했으며 2024년에도 예수회 사제를 초대해 두 차례의 피정을 가질 예정이다.

기사/사진 제공: 김진경 만나

# 기도와 순종으로 공정과 정의 실천

## 김남수 마태오 신부, 롱아일랜드 한인성당 부임



김남수 마태오 신부가 부임 미사를 봉헌한 후 사목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창식 스테파노 총무, 김남수 신부, 이재만 미카엘 사목회장, 김철수 펠릭스 부회장).

**【뉴욕】** 김남수 마태오(부산교구) 신부가 천주교 롱아일랜드 한인성당 9대 주임으로 부임해 지난 20일 첫 미사를 봉헌했다. 김남수 신부는 2004년 12월 28일 사제서품을 받은 후 울산 바오로 성당, 부산 사직, 용호 성당, 김해 삼계 성당 등에서 사목했고, 부산 메리놀병원 행정 부원장을 역임했다. 김남수 신부는 팬데믹 기간에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이재원 전임 신부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잘 견디어준 신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기도의 집에서 기도가 넘쳐흐르는 공동체,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

지역과 종교 등의 차별이 철폐되어 하느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양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본당에 필요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도움을 부탁했다. 미사 후 열린 환영식에서 주일학교 학생의 꽃다발 증정과 성가대 특송에 이어 전신자가 친교실에서 식사를 나눴고, 이재만 미카엘 사목회장은 김남수 신부가 사목하는 데에 함께 고민하고 적극 동참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에 일조를 하겠다고 했다.

김혜성 기자

# 남가주 한인 가톨릭 미술가회

## 제27회 정기전 및 7개 성당 첫 순회전 개최

**【캘리포니아】** 남가주 한인 가톨릭 미술가회(회장 이미정 마리아, 지도 윤승식 모세 신부) 제27회 정기전이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리앤리 갤러리(Lee & Lee Gallery)에서 열린 후 남가주 7개 성당에서 처음으로 순회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윤승식 신부의 영적 지도 아래 남가주 캘리포니아의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종교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가톨릭 미술가회의 작가로서 가장 아름다운 본질을 추구하고자 교묘한 침묵 속에서 기도를 올리는

미션을 방문해 목상하면서 각자의 내면의 세계를 작품으로 표현했고, 회화 공예 사진 도자기 금속조각 등 개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작품이 소개된다.

참여 작가는 강세실리아, 곽설리, 권마이클, 권케니, 권캐서린, 김글라라, 김미경, 김성일, 김원실, 김윤진, 김이사벨라, 김인철, 김줄리아, 김천애, 김혜경, 문두현, 민유진, 박혜숙, 시제시카, 양문선, 이미정, 오수완, 이제이, 임주빈, 장제인, 정스텔라, 주선희, 최경하, 최미카엘, 최유니스, 한헬렌, 흥한

나, 황데레사, 황수잔 등 34인이다.

이미정 회장은 "올해는 27번째의 정기전이 이어 처음으로 각 본당에 찾아가 정기전이 열리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미술을 통한 신앙 고취와 신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전시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윤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많은 관람을 부탁했다. 각 본당 전시회 순회 일정

- 9/1~9/6: 바실 성당(K-TOWN)
- 9/8~9/13: 성 요셉 성당(VALLEY)
- 9/15~9/20: 성삼 성당(LA)
- 9/22~9/27: 한국 순교자 성당(OC)
- 9/29~10/4: 성 라파엘 성당(NORWALK)
- 10/6~10/11: 성 프란치스코성당(GARDENA)
- 10/13~10/18: 성 아그네스성당(LA)
- ▶ 문의: 이미정 회장 (562) 292-4968

# zoom으로 하는 연중 신앙 특강

## 9월 8일(금) 오후 8시 (동부)

미주가톨릭평화신문(사장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이 주최하는 zoom으로 하는 연중 신앙 특강이 오는 9월 8일(금) 동부시간 오후 8시부터 개최된다.

'조선 초기 교회의 신앙활동과 교회조직'이란 주제로 정민 베르나르도가 강의한다. 정민 베르나르도는 현재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가톨릭 학술 번역상을 수상했고, 역서로 「칠곡, 마음을 다스리는 7가지 성찰」을 비롯해 저서로는 「서학, 조선을 관통하다」 외 다수의 작품이 있다.

http://zoom.us  
ID: 813 360 8420 / PC: 12345  
신청비는 무료 / 선착순 1,000명 마감

**cpbc 미주가톨릭평화신문**  
The Catholic Peace Times Weekly, Inc.

Publisher: Rev. Je Hyoung Cho

Tel : (718) 762-6500  
Fax: (718) 762-5108

The Catholic Peace Times Weekly (USPS 10804) is published weekly(except Lunar New Year, Summer Vacation & Korean Thanksgiving) for \$150.00 per year by The Catholic Peace Times Weekly, Inc. Periodical postage paid at Flushing, NY.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The Catholic Peace Times Weekly, Inc.

145-27 33rd Avenue, Flushing, NY 11354  
Home page: peacetimesweekly.org  
E-mail: peacetimes93@hotmail.com

구독료: 1년 미국 \$150.00 (USD)  
캐나다 \$300.00 (CAD)

### 성지순례 전문 마리아투어와 함께 일상에서 벗어나 주님을 체험하는 순례 길을 떠남시다.

<p><b>세계 최초의 성모 발현 성지</b></p> <p><b>과달루페</b></p> <p>4박5일</p> <p>2024년 2월2일-6일</p> <p>지도사제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p>	<p>하늘이 어루만진 땅!</p> <p><b>메우고리에 순례</b></p> <p>8박 9일</p> <p>수시 출발 문의 바랍니다.</p> <p>성모님 발현에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은총의 성지 순례가 될 수 있는 의미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42년 동안 매일 메우고리에 발현하시는 구세주의 어머니께서 6명의 목격 증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와 메우고리에 마을 일상 등 메우고리에 순례자 매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p>	<p>1981년부터 42년간 지금도 매일 성모님 발현</p> <p><b>메우고리에</b></p> <p>8박 9일</p> <p>2024년 3월 11일-20일 \$2,200</p> <p>미리야나 생일 특별 발현</p> <p>(메우고리에 순례자 매일 프로그램)</p> <p>유네스코 지정문화유산지 모스타르 티랄리나 자비성당 등</p>	<p>성주간과 부활절을 메우고리에에서</p> <p><b>발칸 3국 메우고리에</b></p> <p>10박 11일</p> <p>2024년 3월 22일-4월 1일 \$3,700</p> <p>지도사제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p> <p>★3월31일 부활대축일★</p> <p>자그레브 자다르 루블라나 크로아티아 브리제 스플리트 블레드 베브리치 트르사트 메우고리에 플리트비체 국립공원</p>
<p>평화신문 창립 36주년 기념 성지순례</p> <p><b>산티아고 도보순례 130KM</b></p> <p>지도사제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p> <p>마드리드, 부르고스, 사하군, 엘 부르고, 라네로, 레온, 사리아, 포르토 마린, 루고, 팔라스 데 레이, 아르수아, 산티아고, 아레날, 목시아, 피네스테라, 꼬바동가, 꼬미자, 산탄테르, 빌바오</p> <p>2024년 4월 2일-13일 11박 12일 \$3,600</p>	<p>바로로 사도 따라...! 이 눈에 빛을 주소서."</p> <p><b>터키(튀르키예), 그리스</b></p> <p>지도사제 김의태 베네딕토 신부</p> <p>이스탄불, 카이사리아, 카파도키아, 피시디아, 라오디케이아, 필라델피아, 에페소, 요한목사님 일곱교회 순례, 필립비, 데살로니카, 경이로운 메테오라 수도원, 아크로폴리스, 아폴로신전,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코린도 유적지 등.</p> <p>2024년 9월 30일-10월 10일 10박 11일 \$3,600</p>	<p>주님이 남기신 발자취 따라... 약속의 땅! 거룩한 땅!</p> <p><b>이스라엘, 요르단</b></p> <p>나자렛, 가나 첫 기적, 거룩한 변모 타볼산, 갈릴레아 호수, 요르단 세례터, 에리코, 베들레헬, 공관, 베들레헬 성탄성당, 주님 승천, 주님의 기도, 게사마니, 요르단 외딴막, 모세의 샘, 느보산, 모세의 구리뱀(민수기 21장 8-9절)</p> <p>문의 11박 12일</p>	<p>영원한 도시 로마!</p> <p><b>이태리 성지순례</b></p> <p>밀라노 산조반리 로론도 베니스 로마 피렌체 바티칸 아씨시 오르비에토</p> <p>문의 9박 10일</p>